

바빌론에 포로 된 데서 돌아온 후 좋은 땅에서의 생활의 핵심적인 방면들

성경: 대상 4:10, 9:1, 16:8-12, 16-18, 29:10-20, 대하 20:15-22, 36:22-23

- I.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일종의 예표로서 신약의 믿는 이들을 예표하며, 따라서 교회를 예표한다 — 대하 36:22-23, 고전 10:6, 11.
- II. 유다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다. 따라서 포로 된 데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했다 — 대상 9:1, 고전 4:1-2, 7:25, 딤후 2:13, 계 17:14.
- A.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 데 신실하시다 — 애 3:23하.
- B.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다.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실 수 없고 거스르실 수도 없다 — 딤후 2:13.
- C. 신실함이라는 미덕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실 때, 그분은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그분의 미덕에 있어서 그분이 된다 — 고전 7:25, 딤후 2:13.
1.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실 수 없는 것과 똑같이, 하나님으로 구성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— 비교 앰 3:16-17.
 2.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신실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— 고전 4:1-2.
 3.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 신실할 것이다. 우리의 존재 곧 우리의 조성은 우리가 신실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다.
- D.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 곧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청지기 직분을 완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— 고전 4:1-2, 7:25, 딤후 1:12.
- E. 주님은 아말렉돈에서의 전투를 위해 오실 때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자 모든 왕의 왕이실 것이고, 그분과 함께하는 이기는 이들은 ‘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’일 것이다 — 계 17:14, 19:11-21.
- III. 바빌론에 포로 된 데서 좋은 땅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고, 여호와께 순종하며,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— 대상 16:8-14.
- A. ‘하나님’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함축하며, ‘여호와 하나님’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.
- B.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시다 — 창 2:4, 8, 15-16, 18-19, 21-22.
- C. ‘여호와’의 의미는 ‘나는 -이다’이다.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, 곧 과거에도 계셨고, 현재에도 계시며,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— 출 3:14, 계 1:4.

- D. 여호와만이 ‘-이다’이신 분이시다 — 히 11:6.
1.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이분은 위대한 ‘-이다’이시다. 동사 ‘-이다(to be)’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.
 2. 하나님은 우주적인 ‘-이다’, 곧 참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. 오직 하나님만이 ‘나는 -이다’이시다. 오직 그분만이 존재하신다.
- E. ‘여호와’는 존재와 성취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— 창 17:1, 28:3, 35:11, 출 3:14, 6:6-8.
- F.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동사 ‘-이다’의 실재이시기 때문에,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실 것이다 — 요 8:28-29.
- G.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성취의 단계에 있다. 우리는 여호와 곧 위대한 ‘나는 -이다’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 — 출 3:14-16, 요 8:24, 28.

IV.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에서 교회의 터, 곧 하나라는 터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한다 — 대하 36:22-23, 비교 신 12:1-32.

- A. 교회의 지방적인 터는 기본적으로,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이다 — 엡 4:4, 고전 1:2, 12:27.
- B. 신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, 교회의 터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.
1. 교회의 터를 구성하는 첫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이다. 이것은 ‘그 영의 하나’(엡 4:3)라고 불리며,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하나를 위해 기도하셨다.
 2. 교회의 터의 둘째 요소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인데,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이 유일한 터 안에 세워지고 존재한다 — 계 1:11, 행 14:23, 딤후 1:5.
 3. 교회의 터의 셋째 요소는 하나(oneness)의 영의 실재, 곧 신성한 삼일성의 살아 있는 실재이신 그 영의 실재이다 — 요일 5:6, 요 16:13.
- C. 교회의 터는 내재적으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— 시 133:1, 3, 36:8-9.

V. 좋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— 대상 16:15-18, 창 15:7-21.

- A.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씨에 관하여 하신 약속은 믿었지만, 좋은 땅에 관하여 하신 약속을 믿는 데에는 믿음이 부족했다 — 창 15:6-8.
- B.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셔야만 했다 — 창 15:9-21.
1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었는데,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— 요 1:14, 17.
 2. 신약은 이 언약의 연속이다 — 갈 3:17, 4:22-26.
- C.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— 창 15:9, 롬 6:5-6, 9.
1. 죽음을 당한 세 종류의 가축은 우리를 위하여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, 살아 있는 새 두 마리는 신성 안에서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— 창 15:9, 요 11:25, 계 1:18.

2. 암송아지는 화목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고, 암염소는 속죄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며, 숫양은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다 — 창 15:9, 레 3:1, 4:28, 5:6, 1:10.
3. 성경의 예표에서, 산비둘기는 고난당하는 삶을 상징하고, 어린 집비둘기는 믿는 삶 곧 믿음의 삶을 상징한다.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지니신 두 가지 특징이다 — 창 15:9.
4. 숫자 2는 증거를 나타내므로, 살아 있는 새 두 마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낸다 — 창 15:9, 요 14:19-20, 갈 2:20.

VI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, 또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— 대상 29:10-20, 4:10.

- A. 우주 안에는 세 가지 뜻, 곧 신성한 뜻과 사탄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.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그분께 연결되기를 원하시며, 또한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 기도로 그분의 뜻을 표현하고 그분께 다시 반항하기를 원하신다 — 마 6:10, 7:21.
1. 기도의 참된 의미는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.
 - a.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하기를 의도하신다 — 마 6:10.
 - b.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다.
 - c.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그분께 다시 들려드려 반항한다 — 요 15:7.
 - d.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일을 성취하신다 — 계 4:11.
 2.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에 반항하는 기도만이 어떤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.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하기를 배워야 한다 — 엡 6:18, 요일 5:14-16상.
- B. 아베스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구했다. 아베스의 기도에서 좋은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것이 확대되는 것을 상징한다 — 대상 4:10, 비교 빌 3:8-14.

VII. 역대기하 20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.

- A. 역대기하 20장 15절에서 여호와와 여호사밧왕에게 “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. 싸움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.”라고 말씀하셨으며, 17절 상반절에서는 “너희는 이 전투에서 싸울 것이 없다.”라고 말씀하셨다.
1.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— 대하 20:19.
 2.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,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원수들을 치게 하시니, 원수들이 패배하였다 — 대하 20:22.
- B.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일이다 — 시 119:164, 히 13:15.
1. 성도의 영적 생활의 가장 높은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— 시 146:2, 히 13:15, 계 5:9-13, 19:1-6.
 - a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찬양을 통해 솟아오른다 — 행 16:19-34.
 - b. 찬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— 계 14:1-3, 15:2-4.

2. 영적인 승리는 전쟁에 달려 있지 않고 찬양에 달려 있다 — 대하 20:20-22.
- C. 교회생활과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결된 찬양을 드려야 한다 — 시 22:22하, 히 2:12하.
- D.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— 히 13:15.
- E. “오, 주 저의 하나님! 저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/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렵니다.” — 시 86:12.